



배포 일시	2022. 10. 24.(월)		
담당 부서 (총괄)	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유경수 (044-201-4244)
		담당자	사무관 강경범 (044-201-4255)
			사무관 오상호 (044-201-4254)
			주무관 김홍일 (044-201-4246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국토교통부, 대한항공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이탈 관련 사고수습본부 설치·운영 등 사고 대응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0월 24일 오전 0시 7분경(우리나라 시간, 이하 같음) 대한항공 여객기(KE 631편, 인천 10.23일 18:35경 출발 → 세부)가 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 도중 발생한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하여,
 -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피해상황 파악 등 사고수습 및 현지 공관·항공사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.
 -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, 항공기는 바퀴다리 손상 등 동체 하부가 파손된 상태로 활주로 인근에 정지하고 있어 세부공항 활주로는 폐쇄된 상태입니다.
- 동 사고와 관련하여, 세부공항 운항계획이 있던 진에어 025편(인천 10.23일 20:29경 출발 → 세부, 탑승객 93명)이 인근 클라크공항으로 회항하였고, 제주항공 2406편(세부 → 인천, 탑승객 177명) 지연 중이며,
 - 금일(10.24일) 운항계획된 진에어 025편(인천 19:50 출발 예정 → 세부) 및 에어부산 771편(부산 08:00 출발 예정 → 세부)은 현지 공항 상황 등을 확인하여 운항 여부를 결정 예정입니다.
 - 이와 관련하여 해당 항공사에서 승객들에게 항공기 운항 여부 등 운항계획을 지속 공지 및 안내할 예정입니다.

-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,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및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이 현지 사고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체표시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강경범 사무관(☎ 044-201-425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